

“온라인 수업 학생들에 위안 주고 싶었죠”

호남대 가죽밴드 ‘지극정성’ 화제 교수·학생·직원·동문으로 구성 ‘사랑의 재개발’ 등 온라인 공연 지역 방송에도 출연 연습 장면 등 소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가죽밴드 ‘지극정성’ 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펼친 ‘위로와 격려의 봄’ 공연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연 영상은 이들이 지난 4월 9일 유튜브 ‘호남대TV’를 통해 내보낸 것이다. 이들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샤푸향이 느껴진거야’(장범준), ‘사랑의 재개발’(유산슬) 등 레퍼토리를 연주했다. 공연이 입소문나면서 학생, 교직원들이 사랑하는 ‘가죽밴드’가 됐다.

호남대 가죽밴드 ‘지극정성’(리더 김영균 교수)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멤버는 김영균(외식조리과학과-베이스)·유재연(언어치료학과-보컬) 교수와 서종석(산학협력단-세컨기타), 김민정(외식조리과학과 조교-키보드), 신지영(중국어학과 3년-리드기타), 이현(문화산업경영학과 졸업-드럼)씨 등 6명이다.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해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밴드리더인 김영균 교수는 “애초 지난 2월말 열릴 예정이었던 신개념 오리엔테이션 ‘알래스카’에



호남대 가죽밴드 ‘지극정성’(리더 김영균 교수)의 공연 모습. <호남대학교 제공>

서 선보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집중 연습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아쉽게도 라이브공연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입학식과 봄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캠퍼스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위안과 힘

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주일에 한 차례 연습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간에 연주를 통해 동료애를 돈독히 할 수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등교가 이뤄지면 그동안 못다한 공연을 맘껏 펼칠

것”이라며 열정적인 활동계획을 밝혔다.

‘지극정성’은 최근 지역 방송에도 출연해 밴드 결과물 공연 취지, 연습 장면은 물론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방송된 영상은 호남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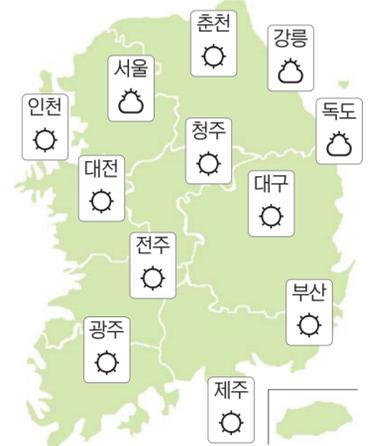
해돋이	05:49	달뜨기	06:35
해질	19:12	달짐	20:16

화창한 주말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8	보성	맑음	1/17
목포	맑음	6/16	순천	맑음	4/18
여수	맑음	7/16	영광	맑음	4/17
나주	맑음	0/17	진도	맑음	5/16
완도	맑음	6/17	전주	맑음	2/18
구례	맑음	1/19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3/17	남원	맑음	-1/18
해남	맑음	2/17	흑산도	맑음	7/18
장성	맑음	1/1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1.5	0.5~1.5
	면바다(북)	1.0~2.0	1.0~2.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0	0.5~1.0
	면바다(서)	1.5~2.5	1.5~2.5	1.5~2.5
	면바다(동)	0.5~1.5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13 20:19	03:02 15:05
여수	03:39 15:48	09:49 22:12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25(토)	26(일)	27(월)
☀	☀	☀
9/21	7/19	8/19
28(화)	29(수)	30(목)
☀	☀	☀
7/20	8/22	10/22

고 최종철 5·18유공자, 39년 만에 부산대 명예졸업장 받는다

1980년 5월 민주화 항쟁에 참여했다가 구타와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고 최종철(사진) 열사가 뒤늦게 명예졸업장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5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정주 출신인 고최종철 열사는 1977년 부산대 조선공학과(현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한 뒤, 1979년 부산대에서 먼저 시작한 10·16부마 민주항쟁과 이듬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1980년 5월 민주화 시위에 적극 참여해 군부정권 독재에 극렬히 저항했다.

최종철 열사는 1980년 1학기에 부산대를 휴학한 후 고향인 청주에서 충북지역 5월 민주화 시위에 앞장서 5·18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검거됐다.



게 이어져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됐다.

이후 1981년 5월 11일 특사로 석방됐으나, 모진 옥고로 쇠잔해진 몸과 가혹한 시련으로 석방 후 채 넉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해 9월 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는 5·18민주유공자로 1999년 5월 추서돼 2002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로부

터 공식 인정받았다.

부마민주항쟁 발원지인 부산대는 최 열사의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수여식에는 최 열사의 누나인 최종은 씨가 참석해 명예졸업장을 받게 된다.

최 열사는 숨진 지 39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는 셈이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최종철 열사는 부산대 77학번 조선공학과 동기라 더욱 감회가 남다르며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라며 “과거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최 열사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산대와 우리나라가 있다”고 명예졸업장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가톨릭문학상에 이승원 평론가

서울예대 명예교수인 이승원(사진) 평론가가 ‘구도 시인 구상 평전’으로 제 23회 한국가톨릭문학상(상금 2000만원)에 선정됐다.

가톨릭 신문사는 올해의 가톨릭문학상에 이승원 평론가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평론가는 서울대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단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김달진문학상, 편운문학상, 김한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신인상(상금 1000만원) 수상작으로는 장재선 시인의 ‘기술지 않는 길’이 뽑혔다. 장 시인은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며 작품활동을 했다. 그동안 한국가톨릭매스컴상, 서정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주년 5·18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선정 4건 기념사업 진행

이모티콘부터 콘서트까지, 국민이 보내 준 다양한 아이디어로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한다.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상임행사위원장 이철우·이하 5·18 행사위)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모인 4건의 기념사업을 올해 선보인다.

먼저 5·18을 기념하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전국 단체·개인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월 18일 당일에는 광주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5·18 정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동행 추모목표 사이렌 울림’ 행사다.

시민들이 직접 모은 5·18 관련 사진자료를 모아 포토모자이크를 제작,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공감하는 ‘시민참여 포토모자이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주먹밥이나 희생자 등을 날랐던 손수레를 끌며 미술·음악·연극·무용이 섞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달콤한 오월길 무빙 콘서트’(Moving Concert)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5·18 행사위가 지난 3월 16일부터 진행한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사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사업실행 협약식은 22일 5·18 행사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사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된 박세향씨 등이 22일 사업실행 협약식에 참가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제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4월 2일 丁酉)

☎ 010-9790-8237

36년생 천명은 하늘에 있으나, 소싯적 행하면 그만이다. 48년생 예까지 못한 길성이 비추면서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되리라. 60년생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방지하리라. 72년생 의지대로만 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84년생 의외의 이변이 보이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임하라. 96년생 이대로라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0, 71

37년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대로 성과는 거두게 된다. 49년생 의미가 없느니라. 61년생 예리한 탐색을 하지 않으면 허점을 간과하게 된다. 73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85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니라. 97년생 충동적이라면 시정확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9, 85

38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환경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62년생 느낌으로만 판단하여 건너뛴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74년생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많겠다. 86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98년생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환기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81, 84

39년생 풀리게 되어 있으니 마음 놓아라. 51년생 현실화 된다. 63년생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 뒤야 한다. 87년생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씩이 트는 국면이다. 99년생 상호 공조가 순탄함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37, 69

40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52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64년생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76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판국이 펼쳐지겠다. 88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심하게 된다. 00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97

41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실함에 직면하게 된다. 53년생 쉽게 보고 덤벼들다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65년생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77년생 바람직한 여건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진다. 89년생 조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히 수용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01년생 일정한 기준과 체계 하에서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34, 58

42년생 능숙하지 못하다면 그칠 수밖에 없느니라. 54년생 체재할 잘 한다면 좋은 일이 줄을 이을 것이다. 66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맞다. 78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 되는 성국이니라. 90년생 가장 최근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2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90

31년생 목격하는 바와 동 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43년생 타당성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느니라. 55년생 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윤행유가 필요하다. 67년생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9년생 대상을 잘 선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91년생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기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5, 78

32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오하라. 44년생 긍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으리라. 56년생 주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자. 68년생 방법과 강도에 따라서 결과는 제각각이다. 80년생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로다. 92년생 지혜가 있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82

33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45년생 지금 상당한 쓰라림이 있다하더라도 감내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57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69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질 징조이다. 81년생 기회는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니 눈여겨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93년생 다다익선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6, 59

34년생 진술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46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8년생 더딜수록 더욱 더 완벽해질 것이다. 70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82년생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94년생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13, 80

35년생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47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59년생 욕심을 낸다면 도리어 화를 당하리라. 71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83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95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24, 89